

3. 금융안정

가. 거시건전성 분석·평가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금융안정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정책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등 금융안정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여건 악화, 국내 경기둔화 등에 따른 금융안정 관련 리스크 증대 가능성에 대응하여 금융시스템 내 잠재리스크 요인의 선제적인 포착 및 조기경보(early warning) 활동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 등을 통해 금융시스템 취약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금융안정 관련 국내외 정책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금융안정상황 점검²⁶⁾

한국은행은 가계 및 기업 신용시장, 자산시장, 금융기관 등 부문별 금융안정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예상치 못한 충격 발생에 대비하여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능력 등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을 점검하였다.

2019년 중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였다. 다만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이슈의 전개 양상에 따라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외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가계 및 기업의 재무건전성

이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다소 저하되는 움직임을 보였다. 전반적인 금융시스템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안정지수²⁷⁾(FSI, Financial Stability Index)는 미·중 무역분쟁 지속 및 경제주체의 심리 위축 등으로 2019년 중반 주의단계(8.0)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높아지기도 하였으나 이후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림 III- 7. 금융안정지수(FSI)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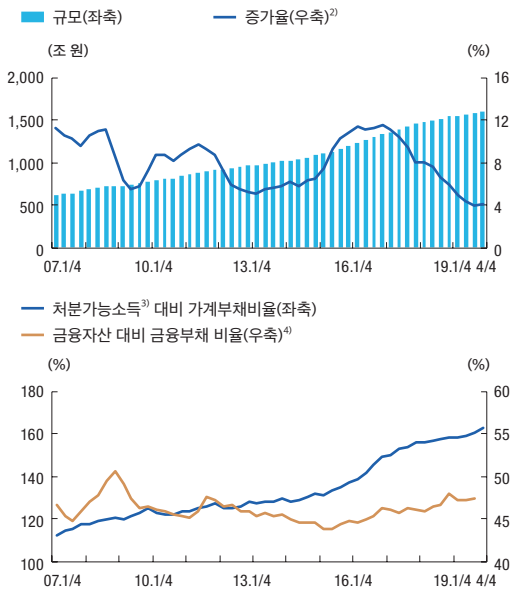
민간부문의 레버리지 수준을 나타내는 민간 신용/명목GDP 비율은 2019년 말 197.4%(추정치)로 전년동기대비 9.7% 포인트 상승하여 그간의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민간신용의 증가율은 2018년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명목GDP 증가율이 하락하면서 레버리지가 확대되었다. 가계신용은 주택시장 및 가계대출 관련 규제 강화

26) 한국은행은 2017년부터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안정상황을 매분기 점검하는 금융안정회의를 연 4회 개최하고 있다. 또한 금융안정회의 관련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기 위해 회의 당일 보도자료 배포 및 기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6월 및 12월 회의에서는 금융안정보고서를 심의·의결한 당일에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27) 금융안정 상황을 나타내는 금융 및 실물 6개 부문(은행, 금융시장, 대외, 실물경제, 가계, 기업)의 20개 월별 지표를 표준화하여 산출한 종합지수(0~100)로, 금융안정 상황을 정상, 주의, 위기 단계로 구분하며 주의 단계는 대내외 충격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심각하지 않은 경우를, 위기 단계는 대내외 충격이 우리나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나타낸다. 주의 및 위기 단계 임계치는 'noise-to-signal ratio' 방식에 따라 각각 8과 22로 설정하였다.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가계소득 여건 악화로 가계 전반의 채무상환부담은 커졌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연체율이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소폭 상승 전환하는 등 가계부채의 건전성이 다소 저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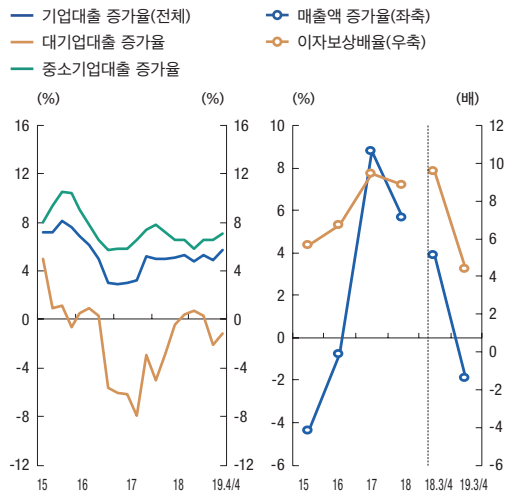
그림 III- 8. 가계신용¹⁾



주: 1) 가계신용통계 기준
2) 전년동기대비
3) 분기 자료는 추정치
4) 자금순환통계 기준
자료: 한국은행

기업신용은 은행의 적극적인 대출 취급 노력 등에 힘입어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대내외 경영여건 악화 등의 영향으로 성장성 및 수익성이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저하되었다.

그림 III- 9. 기업신용¹⁾ 및 재무건전성²⁾



주: 1) 예금은행(일반은행, 특수은행 및 외원지점) 기업(금융 및 보험업 제외)대출 기준

2) 사업보고서 공시 상장기업, 일부 비상장기업 등 총 2,146개 기업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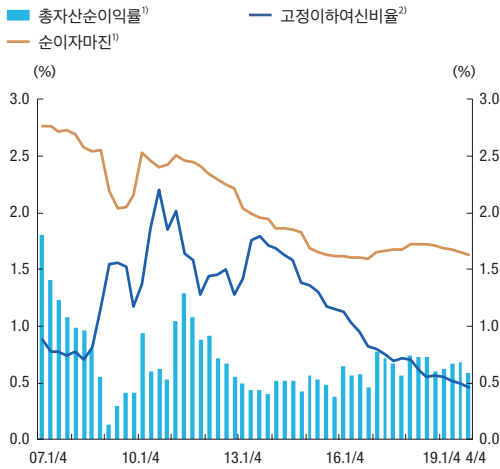
3)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이자비용

4)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KIS-Value

금융기관의 경우 일반은행의 경영상황은 자산의 증가세가 확대되고 건전성도 개선되는 등 양호한 모습을 이어갔으나 금리 하락에 따른 순이자마진 축소 등으로 수익성은 소폭 하락하였다.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영상황도 대체로 양호한 수준을 이어갔으나 수익성이 다소 낮아지는 가운데 일부 업권은 자산건전성도 저하되는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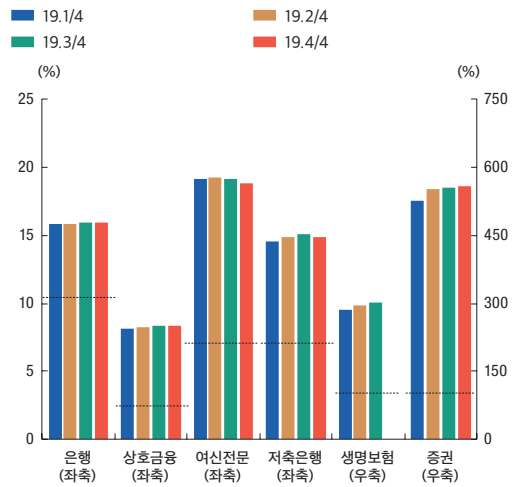
그림 III- 10. 일반은행 자산건전성 및 수익성



주: 1) 누적 분기 실적을 연율로 환산
2) 기말 기준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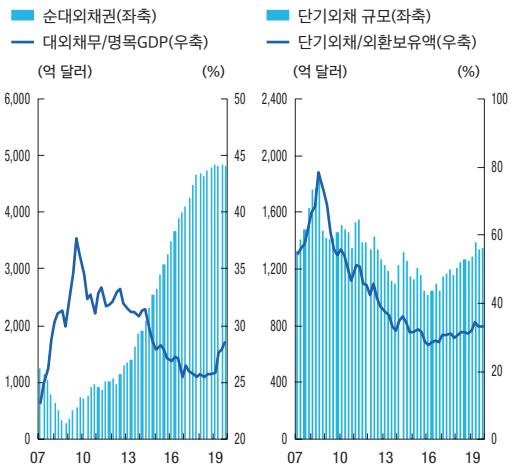
한편 금융시스템의 복원력, 즉 대내외 충격을 감내하는 능력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였다.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 모두 자본비율이 규제수준을 크게 상회하였으며 은행의 유동성 상황도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 무역분쟁 심화에 따른 경기둔화 및 금융시장 불안 등 실물·금융의 복합충격을 가정한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도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지급능력 측면에서도 순대외채권 및 외환보유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단기외채 비율도 예년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림 III- 11. 금융기관¹⁾ 자본비율²⁾³⁾



주: 1) 은행은 일반은행 기준
2) 은행 총자본비율(10.5%, D-SIB은 11.5%), 상호금융조합 순자본비율(감독기준 2%, 새마을금고는 4%, 농협은 5%), 여신전문금융회사 조정자기자본비율(7%, 신용카드회사는 8%), 저축은행 BIS자기자본비율(7%,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은 8%), 보험회사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100%), 증권회사 순자본비율(100%)
3) 점선은 감독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그림 III- 12. 명목GDP 대비 대외채무 비율¹⁾ 및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¹⁾



주: 1) 분기 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앞으로 한국은행은 국내외 성장세 둔화,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 등에 따라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에 유의하며 금융 안정 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채무상환능력 저하가 우려되는 일부 취약 가계 및 기업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가운데,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경제주체의 수익추구 성향이 강화되면서 부동산 및 위험자산으로의 자금 유입이 확대되는 등 금융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다.

공동검사 수행 및 국내외 금융안정 현안 논의 참여

한국은행은 가계 및 개인사업자 대출 관련 규제 강화, 기업금융 활성화 정책의 효과를 살펴 보기 위해 국내 주요 은행의 가계, 자영업자 및 기업에 대한 대출 취급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과 공유함으로써 정책효과 제고를 유도하였다. 또한 일부 외은지점의 역외거래 중심의 자금조달 운용이 단기외채 증가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외은지점의 영업행태와 이에 따른 잠재리스크를 점검하였다. 이외에도 금융기관간 상호연계성이 높아지면서 개별 금융기관의 영업행태 변화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점을 감안하여 개별 은행의 경영실태, 자금조달·운용과 관련한 리스크 요인, 한국은행 규정 준수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관계기관간 「거시경제금융회의²⁸⁾」, 「가계부채관리협의체」 등에 참여하여 대내외 금융안정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하였다. 2019년에는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및 홍콩시위 사태 등에 따른 대내외 리스크가 국내 경제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대응방향을 모색하였다.

또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연계성이 높아져 국가간 정보공유 및 정책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국제기준 제정기구의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하였다.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 및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의 회원기관으로서 암호자산,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등 금융혁신 부문과 기후변화 등 새로운 금융안정 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에 기여하였다. 이 밖에도 FSB 산하 아시아 지역자문그룹과 동남아시아·태평양 중앙은행기구 은행감독실무그룹의 회원기관으로서 역내 금융안정 논의에 참여하였다.

한편 기후 및 환경 관련 금융리스크에 관한 국제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2019년 11월 중앙은행 및 감독기구간 논의체인 녹색금융네트워크(NGFS, 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²⁹⁾에 가입하였다.

표 III-7. 은행에 대한 공동검사

	2015	2016	2017	2018	2019
부문검사	5	3	4	3	4
개별은행 리스크 검사	2	3	2	2	2

자료: 한국은행

28)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부기관장이 참석하는 협의체로 2012년 7월에 신설되어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를 개최하며 의장은 기획재정부 차관이다.

29) 기후 및 환경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를 위한 모범 관행 공유,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이행 지원 등을 목적으로 2017.12월 설립된 다발적 논의체로서 2019.12월 말 현재 54개 중앙은행 및 감독기구가 참여 중이다.

나. 외환부문 거시건전성정책

한국은행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환율 및 자본 유출입 등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각별히 유의하여 외환부문 거시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노력을 지속하였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 축소 기조, 거주자 해외 투자 수요 증가 등 외환수급 변동의 구조적 요인을 포착하고 증장기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외채 증가 가능성에 유의하여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였다. 아울러 외환거래 상대방이 다양해지고 거래가 복잡해짐에 따라 비은행 금융기관 및 파생상품거래 등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였다. 글로벌 저금리 기조 지속으로 인한 국내 금융기관의 고위험 상품 투자 현황 등도 수시로 점검함으로써 향후 외환부문의 잠재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였다.

한편 외화 LCR³⁰⁾ 등 기 도입된 외환정책의 효과를 점검하고 규제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체계화함으로써 외환부문 거시건전성정책³¹⁾을 보다 정교하게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외국환은행 및 중개회사 등에 대한 검사,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대내외 여건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한 외환정책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다. 중층적 금융안전망 확충

UAE와의 통화스왑계약 재체결

한국은행은 대내외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층적 금융안전망 강화 노력을 지속하였다. 그 일환으로 2019년 4월 UAE 중앙은행과 통화스왑을 재체결하였다. 동 스왑은 계약기간 3년에 200억 디르함/6.1조 원(약 54억 미 달러 상당) 규모이며 만기도래 시 협의를 통해 연장이 가능하다. UAE와의 통화스왑은 평상시 뿐 아니라 국제금융시장 불안정 시 미 달러화 대신에 상대국 통화 또는 원화를 활용하여 무역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약을 맺은 것으로 양국의 교역 증진과 금융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한·중 통화스왑자금으로는 양국 간 기업 무역결제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원화의 교역결제 활용을 유도하는 등 통화스왑의 제도적 기반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역내 금융안전망 실효성 제고

한국은행은 역내 금융안전망 실효성 제고에도 노력하였다. 먼저 2019년 5월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³²⁾에서는 역내 다자간 통화스왑협정인 CMIM(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³³⁾의 개정 협정문³⁴⁾이 최종 승인되는 데 주요 역할을 담당하였

30) 2017년 1월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Liquidity Coverage Ratio = 고유동성 외화자산/향후 30일간 외화 순현재가치 출액)이 규제수준으로 공식 도입되었으며, 은행별 특수성에 따라 차등 도입(일반은행 60%, 특수은행 40%)된 이후 2019년 80%(산업은행 60%)로 상향되었다.

31)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 외화대출 관리 강화, 외환파생상품포지션 비율 규제, 외화유동성 규제 등

32) 동 회의는 매년 ASEAN 10개국 중 1개국과 한·중·일 3개국 중 1개국이 순차적으로 공동의장국을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다. 2018년에는 우리나라와 싱가포르가 공동의장국을 수임하였으며, 2019년은 중국과 태국이 담당하였다.

33) ASEAN+3 국가는 CMI의 양자 간 스왑계약(bilateral swap agreement)의 미비점을 극복하고 위기대응능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2010년 3월 CMI를 다자화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를 출범시킴으로써 역내 금융지원체제를 강화하였다.

34) 주요 개정 내용은 IMF 연계자금 지원기간 확대 등 자금지원체제 강화, 신용공여조건 부과 확대, IMF와의 협력 및 대외 커뮤니케이션 개선 등이다.

다. 동 개정문은 2018년 한국은행이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회원국 간 협의를 통해 마련한 것이며, 자금지원체계 강화 등 CMIM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반 조치들을 반영하였다. 또한, CMIM 제10차 모의훈련³⁵⁾에서 실제 자금이동이 수반되는 최초의 실거래 테스트를 실시하여 역내 금융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하였다.

표 III - 8. 우리나라의 통화스왑 체결 현황

구분	체결 국가	규모 (미 달러 ¹⁾ 기준)	최근 체결 연장일 ²⁾	만 기
자국 통화 스왑	캐나다	사전한도 없음	2017년 11월	없음
	스위스	100억 프랑/11.2조 원 (약 106억 달러 상당)	2018년 2월	2021년 3월
	중국	3,600억 위안/64조 원 (약 560억 달러 상당)	2017년 10월	2020년 10월
	인도네시아	115조 루피아/10.7조 원 (약 100억 달러 상당)	2017년 3월	2020년 3월
	호주	100억 호주달러/9조 원 (약 77억 달러 상당)	2017년 2월	2020년 2월
	말레이시아	150억 링기트/5조 원 (약 47억 달러 상당)	2017년 1월	2020년 1월
	UAE	200억 디르함/6.1조 원 (약 54억 달러 상당)	2019년 4월	2022년 4월
미달 러화 스왑	CMIM	384억 달러 ³⁾	2014년 7월	-

주: 1) 최초 또는 규모 확대 체결 시 환율 기준

2) 2019년 말 기준

3) CMIM 총 재원은 2,400억 달러이며 우리나라의 수혜 및 분담 규모는 각각 384억 달러(16%)

자료: 한국은행

라. 금융불안 요인 발생 시 비상대응체제 가동

한국은행은 국내외 금융불안 요인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장변동성 확대가 예상되는 시기에는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여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살피고 대응방안을 점검하는 등 금융시장의 안정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다.

Brexit 합의안 부결(1월), 북·미 정상회담 합의 결렬(3월), 미·중 무역분쟁 심화 우려(5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7월), 위안화 절하 및 미국의 대중국 환율조작국 지정(8월)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던 시기에는 총재 주재 긴급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 「통화금융대책반³⁶⁾」 회의 등을 개최하여 금리, 주가, 환율 등 가격변수의 움직임과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입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다. 아울러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여 불안심리가 과도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35) CMIM 자금인출 모의훈련은 2019년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실시되었고, 제10차 모의훈련은 실제 자금이동이 수반되는 최초의 테스트로서 2개국 중앙은행이 통화스왑 자금을 요청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타 ASEAN+3 회원국 중앙은행이 지원하는 시나리오로 실시되었다.

36) 부총재, 통화정책·국제담당 부총재보 및 관련 부서장 등으로 구성되며 국내외 금융불안 요인 발생 시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